

■ 결혼과 여성의 지위 - 사랑법의 세대차 ㉔

외도의 희열에서 부호화된 성까지

“열린 그의 몸 속으로 뜨겁고 부드러운 하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경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속살을 가득 채우는 충만함에 서서히 일상의 그물을 풀어버렸다. 일상의 그물, 그것은 너무도 하찮고 구질구질하고 거짓투성이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허위들의 거친 껍질이 이렇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벗겨져 나가더니... 태경의 몸이 울기 시작했다. 그의 생명이 따라 올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맨살에 존중의 낙인을 찍었다....” (〈혼자 눈뜨는 아침〉 235쪽)

할머니의 세대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소설 주인공의 세대에서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과 그의 결과로서의 성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외도라는 관계 속에서만 가능해진다. 부부관계 속에서의 불감증과 외도를 통한 성적 희열이라는 이분법의 공존시대를 살아간 또 한 세대의 기록인 것이다.

사랑과 성을 동시 추구—
〈결혼이야기〉의 세대들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대부분 ‘사랑은 성의 조건’이라는 항목에 동그아미를 칠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성을 나눈다, 혹은 성은 사랑의 확인이다라는 논리가 그다지 낯설지 않은 세대가 등장했다. 간혹 ‘성 따

로, 사랑 따로’를 주장하는 미혼여성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성과 사랑에서 ‘결혼’이라는 안전판을 뽑아내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 결혼할 남녀간에는 혼전성관계가 제법 자연스러워진 요즘이다.

이런 세대의 사랑법을 대변하는 영화가 〈결혼이야기〉였다. 결혼이야기는 어떤 묘지 근처의 큰 나무 뒤에서 남녀의 걸음이 던져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웨딩마치는 그 다음이다. 혼전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 주인공 부부를 나무랄 관객은 아무도 없다. 이 두 남녀는 사랑하고 결혼할 것이므로 그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 두 남녀를 발랄하고 행복한 커플로 비치게 만드는 것이다.

결혼한 이후에도 이 두 남녀의 결혼생활은 많은 부분이 ‘침대생활’로 할애되고 있다. 둘간의 감정이 안 좋아지면 우선 둘 사이의 이불에 금을 긋는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신부도 제법 적극적이다. 여자의 발언권이 강화되었기에 이들의 결혼 생활은 티격태격하는 재미를 선사할 수 있다. 이 영화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들였다.

성 따로 사랑 따로인
세대의 등장—
〈그대안의 블루〉의 사랑법

〈결혼이야기〉를 본 기성세대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의 사랑법’을 보고 충격을 받았



지만 ‘귀엽다’는 느낌으로 넘어가 주었다. 그러나 요즘 대중가요의 판도가 어른들에게 소외감을 잔뜩 선사했던 서태지마저도 고전으로 만들면서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 가듯이 사랑법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결혼이야기〉의 신선한 기억을 잊기도 전에 한 발 더 나간 사랑법을 소화해야 할 상황이 생겨났다. 〈그대안의 블루〉가 전하는 사랑법이다.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호석(안성기 분)’은 그야말로 전위적인 사랑법을 ‘선언’한다. 프로 디스플레이어인 호석은 성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다르며 사랑의 대상과 생활상의 파트너가 다르다. 그에게 주된 생활은 치열한 프로정신으로 이어지는

일의 세계이며 여기엔 감정이 배제된다. 또 사랑은 인간간의 정서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며, 성은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본능의 문제인 것이다.

인격도 이름도
필요없는 부호화된 성

이 논리에 따라 호석은 여자주인공 유림(강수연 분)을 ‘사랑’하지만 그 감정을 일로 연결시키지 않으며 그와 성관계를 맺지도 않는다. 그는 자동응답기를 통해 녹음되는 ‘Y’라는 여자의 메시지를 통해 성욕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자동응답기에는 늘 “엑스예요 0월 0일 0시, 00호텔 00호실” 하는 메시지가 녹음돼 있다. 그에

겐 섹스 파트너가 인격도 이름도 문제되지 않기에 부호와 숫자로 표기될 수 있으며 관객도 그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구할 수 없다. 당당한 성의 거래, 이것이 성남자주인공이 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호석을 따르는 여자주인공 유림은 이런 방식에 영서를 않는다. 유림은 성에 차지 않는 결혼식을 거부한 여자로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결혼식장을 탈출해온 별난 여자이긴 하지만 호석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일 속에 사랑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사랑과 성을 결부시키려고 한다. 두 남녀주인공의 다른 사랑법이 마찰을 빚어내는 과정은 〈그대안의 블루〉를 이끌어가는 스토리를 형성한다.

거스를 수 없는
사랑법의 추세—
낭만적 사랑, 분해된 사랑

사랑법의 역사를 일별해봐도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할머니 세대의 체험을 가진 이들이 요즘의 결혼이야기나 그대안의 블루 세대를 이해해줄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터이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할머니 세대의 성과 사랑의 체험을 미개인 사회의 풍속도쯤을 보는 기분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사회변화의 대세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랑법의 추세도 점점 낭만적인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 필요성에 따라 성과 사랑과 결혼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성과 사랑, 결혼의 형식도 다양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윤리규범도 함께 변화해나갈 것이다.

〈그대안의 블루〉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사랑법에서 매춘의 비윤리성을 설파하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지겹고 무의미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에겐 매춘인 것과 매춘이 아닌 것과의 구별도 무의미해질지 모른다. 또 〈결혼이야기〉 세대에게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세상물정 모르는 고리타분한 얘기가 될 것인가?

여자의 성이 오로지 출산의 도구에서 자기감정의 표현영역으로 분화돼 온 것은 분명할 전일 것이다. 그러나 그 땀기는 무엇이었을까? 〈김효선 기자〉